



미 증시, 테슬라 및 애플발 악재로 하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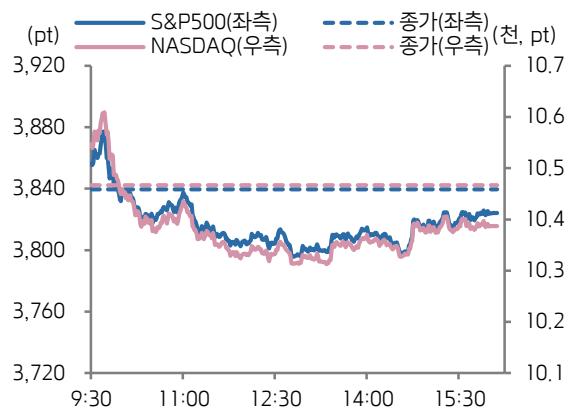
3 일(화) 미국 증시는 첫 거래일을 맞아 중국 경기 재개 기대감, 유럽 경제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테슬라(-12.4%), 애플(-3.7%) 급락 충격으로 하락 마감 (다우 -0.03%, S&P500 -0.4%, 나스닥 -0.76%)

독일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8.6%(예상 9.1%, 전월 10.0%), 전월대비 -0.8%(예상 -0.6%, 전월 -0.5%) 증가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에너지 물가의 상승폭이 20%대로 축소된 것이 지수 하락에 기여. 유가 하락에 더해 독일 정부가 가스 가격 제동장치를 도입하고, 가스 사용 가구에 12 월 난방비를 지원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10 월 10.4%로 정점을 기록한 뒤 빠르게 한자릿수로 하락하고, 실업자 변동수 역시 전월대비 감소 전환하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감 부각. 지표 발표 이후 유럽의 인플레이션 완화 및 ECB 긴축 기조 완화 기대감 부각되며 유로화는 약세.

업종별로 통신(+1.4%), 금융(+0.4%), 부동산(+0.3%)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3.6%), IT(-1%), 경기소비재(-0.6%) 업종은 하락. IMF 총재는 올해 전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유가가 4%대 급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에너지 업종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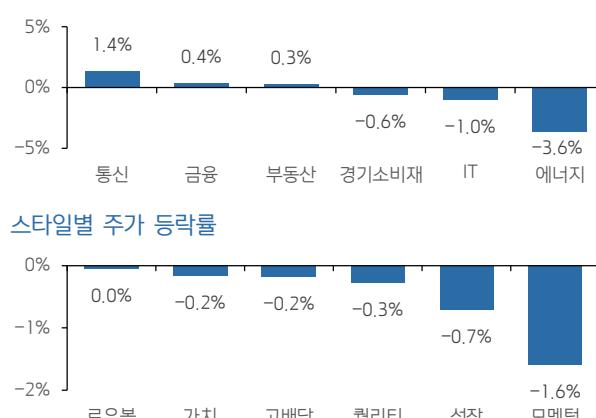
알파벳(+1.01%), 아마존(+2.17%), 메타(+3.66%) 등 시총 상위주 대부분 상승. 그러나 애플(-3.74%)은 중국 내 공급업체인 폭스콘 공장이 코로나 19 재확산과 소요 사태 이후에 다시 약 20 만명의 근로자를 확보해 90% 용량으로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발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출하량 감소 우려가 부각되며 장중 4%까지 낙폭 확대되며 시총 2조달러를 하향 돌파하는 등 약세. 테슬라(-12.2%)는 4 분기 인도 대수 부진으로 개장 전 3% 이상 하락하여 장중 낙폭 확대하며 급락한 반면, 니오(-1.23%), 리오토(+2.8%), 사오펑(+2.41%)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는 양호한 12 월 인도대수를 기록하며 장초반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지수	가격	변화	외환시장	
				지수	가격
S&P500		3,824.14	-0.4%	USD/KRW	1,271.00
NASDAQ		10,386.98	-0.76%	달러 지수	104.68
다우		33,136.37	-0.03%	EUR/USD	1.05
VIX		22.90	+5.68%	USD/CNH	6.92
러셀 2000		1,750.73	-0.6%	USD/JPY	131.05
필라. 반도체		2,500.99	-1.2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398.03	+0.05%	국고채 3년	3.670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670
Eurostoxx50		3,882.29	+0.68%	미국 국채 2년	4.370
MSCI 전세계 지수		606.31	+0.15%	미국 국채 10년	3.739
MSCI DM 지수		2,607.25	+0.18%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56.12	-0.03%	WTI	77.18
MSCI 한국 ETF		55.43	-1.86%	금	1845.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8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1%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78.3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애플 신저가 경신이 국내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여향

주요 체크 사항

- 테슬라 주가 폭락에도 이미 선반영된 국내 2차전주들의 주가 하락 압력 제한 가능성
- 국제유가, 천연가스 급락이 에너지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침체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미국 장단기금리차(10년물-3개월물)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역전된 가운데, 2023년 1월 현시점의 역전폭도 약 20 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기의 침체 진입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 이미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침체 진입 리스크를 이미 주가에 반영하면서 소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 강도”의 문제는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주식시장의 난제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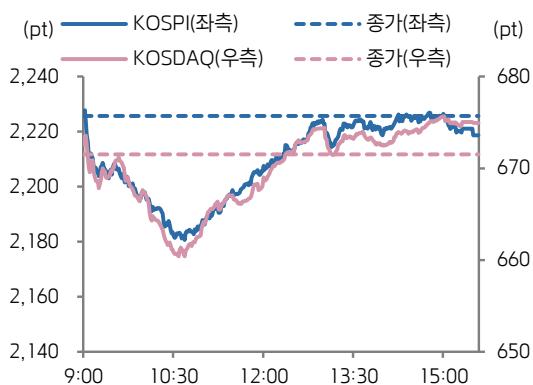
기업 실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물 경기 악화로 인한 전방 수요 둔화가 이익 전망 하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 그러나 전일 인도량 쇼크, 주문 감소 사태 등으로 인한 테슬라(-12.2%), 애플(-3.7%) 주가 급락이 시사하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진행된 전방수요 둔화는 더 이상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침체 강도와 맞물리면서 “침체 강도 상승 → 전방 수요 둔화 → 침체 강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

미국 주식의 대장주이자 성장주이었던 애플과 테슬라의 잇따른 신저가 경신이 새해 첫 주부터 시장의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운 부분. 물론 애플, 테슬라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등 증시 전반적으로 12 월 이후 주가 조정은 과도하게 진행됐기에, 기술적인 반등은 수시로 출현할 것으로 보임. 또 전일 발표된 독일 12 월 CPI 둔화(8.6%YoY, 컨센 9.1%), 6%대 진입을 예고하는 미국 12 월 CPI 등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증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길만한 요인. 하지만 상기 언급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표 확인 작업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주식 자산 내에서도 저베타 종목 일부 편입 등으로 위험관리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장초반 반대매매물량 소화, 장중 금융투자를 중심으로한 기관의 순매도 등 수급상 악재로 1%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과대 인식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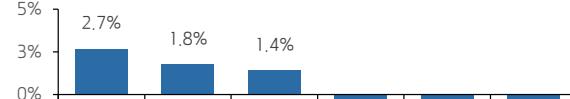
금일에는 테슬라 폭락 등 미국발 악재 속 역외 원/달러 환율 상승(+7 원) 등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작용할 것으로 전망. 다만, 테슬라 인도량 쇼크라는 악재는 전일 국내 증시에서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일 국내 2 차전지 및 자동차 부품주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반면 유가(-3.8%), 천연가스(-10.4%) 폭락으로 미국 증시에서 엑슨모빌(-3.4%), 셰브론(-3.1%) 등 에너지주들이 동반 급락했다는 점은 국내 정유주들의 투자심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기에,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를 대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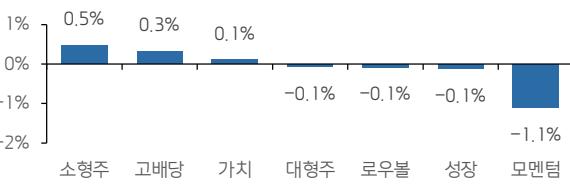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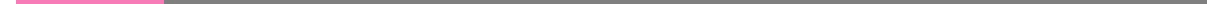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